

비용은 반값, 즐거움은 무한대...이러니 안 반해?



'누구라도 강진 반값 여행'

◇학생들에게 최고 인기 푸소(FU-SO)

여행도, 축제도, 쇼핑도 반값. 강진이 화끈하게 쓴다. 강진군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관광정책으로 여름철 인기 관광지도 부상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여행비의 5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누구라도 강진 반값 여행'과 함께 푸소체험, 하맥축제, 목야청청 등 다양한 여름철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고 물가와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요즘, 강진으로 오면 알뜰하면서도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강진을 대표하는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인 푸소체험이 무더운 여름에도 도시의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푸소는 'feel up stress off'의 약자로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시골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푸소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농가에서 직접 키우는 닭을 잡아보기도 하고,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기도 하고, 여름밤에 장작불을 피워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성과 사람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농촌의 일상적인 풍경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소중한 기억을 안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강진군은 읍·면 90곳을 푸소농가로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농촌·어촌·음식 체험(한옥체험, 곤충아트, 도리지 캐기 등)을 선보여, 도시권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원한 여름 책임질 강진군 5대 물놀이 명소

강진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을 겨냥해 강진읍 V랜드, 칠량면 초당림,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을 일제히 개장했으며 국립공원 월출산 경포대 계곡 일부도 입장을 한시 허용했다. 여기에 가우도까지 합쳐 군의 5대 물놀이장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

강진을 보온산 자락에 있는 V랜드는 워터슬라이드를 정비하고, 도암면 석문공원은 에어바운스와 조함 놀이대 등을 조성해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칠량면에 있는 초당림은 4만 5000 그루의 편백나무 숲으로,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가 득한 산책길을 제공해,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강진군은 이번 물놀이장 개장과 다양한 여름철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또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강진의 매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밤을 수놓는 강진하맥축제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줄 강진군의 대표 축제인 '강진하맥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강진하맥축제는 막강한 공연 라인업으로 무장하고 다시 돌아왔다.

강진 종합운동장 야외에서 열리는 '강진하맥축제'는 첫날인 29일에는 QWER와 노라조, 둘째 날인 30일에는 에일리과 뉴진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운도현밴드가 출연해 무대를 열정적으로 채울 예정이다.

하맥축제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맥아를 활용해 만든 강진군의 자체브랜드 '하멜촌 맥주'를 선보인 축제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흥겨운 공연을 결합하여, 지난해 첫 행사임에도 사흘 동안 약 4만 30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강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야청청 목요일 밤, 강진을 빛낸다

강진은 목요일 밤마다 활기를 띤다. 한낮의 불볕더위와 게릴라성 장맛비도 쉬어가는 시간, 여름의 긴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물들면 강진읍은 신명 나는 음악으로 가득 찬다.

홍대 버스킹 문화와 전주 가맥거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거리문화를 '음악도시 강진' 맞춤형으로 재해석하여 '차 없는 도로에서 음악, 낭만, 청춘이 가득한 여름밤을 즐긴다'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거리에서 전국에서 모인 버스커들의 음악을 라이브로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목야청청'은 지난 7회차까지 약 5000명의 관광객이 1억 2000여만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관광객들에게는 여름밤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실질적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강진의 매력을 경험하고 축제와 체험을 함께하며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라며 "무더운 여름, 강진에서 시원한 가격으로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값 강진여행 즐기는 Tip

연말까지 진행되는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은 여행비 절반을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여행상품이다. 신청절차는 강진 여행 당일까지 강진반값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사전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제출 한 번으로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종료 후 관광지 1개소 방문한 인증사진과 5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구비해 정산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바로 반값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 모든 업종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반값으로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한우, 마량농토수산물시장의 수산물, 오감동 시장의 신선농산물, 상가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까지 쇼핑한 모든 비용에 대해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